

[수험생 김민수]국어 강사 후국일T가 아닌 수험생 김민수로 전하는 글

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사 후국일T

가 아닌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이었던 **수험생 김민수**로 글을 전하고자 합니다.

거북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목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글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고3, 재수생, N수생의 수험생으로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부담감, 긴장감, 두려움의 크기는 일개 국어 강사로서 공감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을

저는 걱정됩니다.

이 글이 수험생으로서 여러분이 겪는 힘겨움을

지난 뒤 미화된 기억으로 돌아보는 거만한 글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이.

하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앞으로 남은 수험생활이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외롭다고 생각될 때 가끔은 기대고, 위로받을 수 있는 글이 되길.**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글을 씁니다.

오늘만큼은 또 앞으로 가끔씩은 국어 강사의 후국일T가 아닌,

여러분들과 같은 수험생이었던,

국어로 인해 누구보다 고민하던 김민수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기에

[이하 수험생 김민수 이야기]

오늘 전해드릴 글의 내용은 제가 6평을 기가 막히게 망하고
어떻게 9평을 위해 준비했는지,
또 앞선 글들에서 그렇게 닳고 닳도록 말했던
일관된 기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그러한 기준을 만드는 공부를 했는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고3시절 수험생 김민수로서 저는
6월 모의평가를 보고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특히 비문학을 어려워했습니다.
독서를 싫어하는 편이라 책도 많이 안 읽었고
신문을 챙겨보는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금머리도 아니기 때문에.

당시 국어 시험을 10여분 남겨놓고
남은 지문이 3지문정도 됐던 것 같네요.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망하고

유명 강사님이 출강하시는 수업도 수강하고,
나름 기출 N개년 문제집도 사서 열심히 풀었고,
LEET로 고난도 지문도 풀어봤고,
여러 공부법과 개념서를 읽어도 봤기에
좌절감과 무기력함은 더욱 컸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나름 열심히 공부했지만,
당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준'이 없는 공부였죠.

유명 강사님의 질 좋은 수업을 듣지만 **내가 왜 그 수업을 듣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LEET와 기출 N개년 문제집을 풀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수많은 좋은 공부법과 개념서를 읽고도 **'아 그렇구나.'에서 끝났던 그런 공부.**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비단
제 수험생 시절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6평을 망하고 느꼈던 좌절감과 무기력함은
남은 수험 생활동안 수능 국어 공부의 방향성 전환하는
아니 애초에 없었던 방향성을 설정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문학 독해의 일관된 기준. 그리고 체화]

일관(一貫): 하나의 방법이나 태도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기준(基準): 기본이 되는 표준.

체화(體化): 생각, 사상, 이론 따위가 몸에 배어서 자기 것이 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3가지 핵심의 [정의]입니다.

<지문 읽기를 위한 기준>

1. 문장 독해의 도구 만들기
2. 붙여 읽기 : 문장단위 연습
3. 붙여 읽기 : 문단단위 연습
4. 전체 지문의 큰 흐름 잡기 연습

위의 기준의 체화를 위한 반복 학습

제가 6평을 망하고 나서 12개년짜리 입시000 기출 문제집을 사서
수능 전날 까지 풀고 또 풀면서 다듬고 수정한 기준이며,
수능 날 1교시 비문학을 풀어내는 데 일관되게 반복한 비문학 지문 읽는 기준입니다.

1. 문장 독해의 도구 만들기

비문학을 못 했던 시절의 가장 큰 문제는 '글을 못 읽는 것' 이었습니다.

사실 비문학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해요.

[지문을 잘 읽기]+[문제를 잘 풀기]+[시간 관리]를 하면 됩니다.

즉

[독해력] +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등] + [효율적 풀이 전략 수립]을 잘하면 된다는 말이기도 하네요.

지문을 잘 읽어내면 [문제를 잘 풀기]는 생각보다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보기>에서 주어진 정보가 지문의 어떤 내용을 이용하기 위한 단서가 되는지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글에서는 **지문 읽는 기준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을 만들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사실 제가 방금까지 한 이야기 대부분이 이제는 **식상한 이야기**가 되었죠.
대부분의 국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이제 저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다만 '어떻게'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국어 영역에서의 **가장 큰 막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준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를 몰랐으니까요.

그 때 문득 든 생각이 평가원의 선택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지문에서 갖는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평가원의 선지로 구성하는 지문의 내용들은 꽤나 **일관**됩니다.

제가 그러한 분석을 통해 기준으로 잡은 문장들은 총 **7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보신 9월 평가원의 지문과 선지들 역시 저는 **'일관된 기준'**으로 읽어내고, 풀어냈습니다.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의 지문과 선지들로 한 번 **[예시]**를 들어가며 같이 볼까요?

1.[정의/의의/한계]

기본적으로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의]와 관련한 문장은 평가원이 지문 말하고 자 하는 바가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던져 주는 선제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뒤에 올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내용 일치 문제]+[글 전개 방식 문제]에서 선지로 빈출이 되며, 간혹 이러한 기본적인 [정의]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구들과 연결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의->인과] 또는 [정의->예시]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죠.

<기출 사례로 살펴보기>

[정의->인과]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22~25번 지문 첫 문단 중

[대표적인 통화정책의 수단인 '공개 시장 운영'은 ~ 접근시키는 것이다.]

라는 정의는 글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었고, 23번의 고난도 <보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정보 중 하나였습니다.

[정의->예시 적용]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29번 ④선지

④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자기 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전형적인 [정의]를 갖고 그러한 정의를 파악했는지를 묻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예시]와 연결지어주면 더욱 좋죠.

4문단 [고전 논리는 '참'과 '거짓'이라는 두 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이다.] +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어떤가요? [자기 지시적 문장의 정의->자기 가리키는 문장->그러한 예시가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 이루어져 있다.'인데 ->이 녀석은 '참'인 문장-> '참과 거짓'이라는 진리치가 부여 됨.] -> ④선지의 반례.

[정의 파악->예시 적용]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2.[구분/분류] + 3.[비교]

'~로 구분된다, ~로 나뉜다.' 등으로 서술되는 [구분/분류]의 문장 역시 중요합니다.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구분/분류]가 나타나면 대상이 나누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통점or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글의 흐름이 두 갈래, 혹은 그 이상으로 나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나뉜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와 선지가 구성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분/분류]다음부터는 제시되는 정보들은 파편화된 체로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같은 덩어리로 묶어주시면서 이해해주시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그렇게 나뉜 대상들의 [공통점]또는 [차이점]이 되는 기준들은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구요.

<기출 사례로 살펴보기>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22~25번 지문 마지막 문단 중

[그런데 어떻게 통화 정책이 민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어디서?->준칙의 엄격한 실천과 관련해서]에서 [구분/분류->비교]가 나타났죠. 24번 문제가 그러한 두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부분이었습니다.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16번 문제

쉬운 문제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역시나 [구분->분류]의 형태로 글이 진행되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 번 같이 볼까요?

㉠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을 높였다. ○

2문단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앞 문장과 붙여 읽으면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현실성이 높다)->따라서 ㉠현실성은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의 공통점이 되겠네요.]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의 공통점 : 1.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음 -> 2. 현실성 추구]이므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X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롱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X

2문단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의 차이점 : 팝아트-함축적 변형 ->주로 현실성 / 하이퍼리얼리즘-대상의 정확한 재현-> ㉠현실성 + ㉣사실성(이러한 사실성은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이은 것)이므로 두 선지 모두 적절하지 않은 선지네요.

④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X

2문단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둘의 공통점이 아니라, 팝아트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선지네요.

⑤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과 ㉡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유파에 해당한다. X

①선지의 근거가 되는 문장과 + 2문단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 리얼리즘 유파이긴 하지만, ㉠과 ㉡을 모두 추구한 것은 하이퍼리얼리즘에 해당하죠.

이 문제를 보면서 [반추동물]지문이었던 작년 수능 지문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추동물&사람 모두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 합성X -> 그러나 사람은 섬유소 이용X 반추동물은O]를 잡아주는 게 핵심이었죠.~)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41번 문제

41. 윗글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현대 사회의 집합 의례는 그 결과가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차이점)
- ② ㉠과 달리 ㉡은 집합 의례가 가치의 일반화를 통해 도덕적 공동체를 구성할 것이라 본다. (차이점)
- ③ ㉡과 달리 ㉠은 집합 의례가 발생하는 과정을 경험적으로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차이점)
- ④ ㉠과 ㉡은 모두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집합 의례를 유기체의 생리 과정과 유사하다고 본다. (공통점)
- ⑤ ㉠과 ㉡은 모두 현대 사회에서는 성과 속의 분류 체계 없이 집합 의례가 일어난다고 본다. (공통점)

평가원의 출제의도 및 선지 구성에 대해 슬슬 느낌이 오시나요? ;)

4.[인과][선후][목적과 수단][조건과 가정]

개인적으로 과학, 기술, 경제지문을 풀 때 매우 유심히 보는 문장들입니다. 정보량이 많은 과학, 기술, 경제 지문에서는 그러한 정보들이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결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해당 도구들이죠. 저는 수험생 때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특히나 당황했습니다. 확 이해가 되지 않고, 뻑뻑하게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쪽 읽어 나가버려서 뒤로 갈수록 글의 선명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또한 '주체'와 '객체'를 놓치고 읽는 경우가 생겼고, 그러한 부분들은 어김없이 선지 판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문장이 길면, 주어와 객체와 술부를 파악하고 문장을 끊어가면서 처리합니다. 흘문장이 아니라, 겹문장들로 이루어져서 수식수가 많거나, 접속사를 통해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독해의 속도를 잠시 늦추시고 천천히 끊어가면서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는 머리만으로 처리가 안 될 땐 간단한 기호들로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번 경제 지문을 해설할 때도 그랬고요. 역시나 정답률 25%에 달하는 23번 문제 해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기출 사례로 살펴보기>

[목적/수단]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 문제 ⑤선지

⑤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목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수단)하였다. X

3문단 [그래서 여자(=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흔히 볼 수 있는 상품)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준다.]

->[목적]을 갖고 오답을 구성한 선지입니다. 즉 [합리적인 소비 성향<->과잉 소비 성향]으로 오답 선지를 구성했네요.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39번 문제 ①선지

①부족 사회는 집합 의례를 행하여(=수단)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되살린다.(=목적) O

1문단 [~집합 의례를 행한다.(=수단)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목적)]

[인과]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문제 ③선지

③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인과)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O

->2문단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 아이슈타인은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이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인과]를 갖고 문맥을 고려해서 답을 골라주셨으면 됩니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관찰->물체의 상태를 결정->아이슈타인은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회의적 태도->그러한 내용이 ㉠의 문장 =바로 위에 밑줄 그어진 빨간 문장에 대한 회의적 내용이 정답 =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공존과 관찰이 물체의 상태를 결정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오면 되는 거)

[조건/가정]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번

30번. 밑글을 통해 ㉠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전형적인 [조건/가정]->[예시 적용]으로 풀어내는 문제였습니다. 지문을 살펴볼까요?

1. 6문단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면(=조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고전 논리 :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O = ‘조건문 & 전건 참이면 -> 후건도 반드시 참’]

2. 6문단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조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만 않지만(=왜?->‘조건문’과 ‘전건’이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인데 -> ‘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지 않고, ‘그냥 거짓’이기 때문에)

->[비고전 논리 중 LP : 전건 긍정 규칙 성립X = ‘조건문 & 전건 참인 동시에 거짓’인데 ->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존재해서]

와 같은 [인과/조건/가정]을 잡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① LP에서 P(=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후건)가 '거짓'이면, \ominus (=조건문)은 '거짓'이다. (X)

->2.에서 알 수 있듯 [이런 경우 \ominus , 즉 조건문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됩니다.]

② LP에서 \ominus (=조건문)과 P(=전건)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후건)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X)

->2.에서 알 수 있듯 [조건문과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더라도 -> 후건이 거짓이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그래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③ LP에서 \ominus (=조건문)과 P(=전건)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되면, 'Q(=후건)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LP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반드시 성립한다.] (X)

->해당 선지는 [LP에서도 전건 긍정 규칙이 반드시 성립한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2.에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와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LP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 적절하지 않네요.

④ 고전 논리에서는 \ominus 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참일 때) Q는 '거짓'이다. =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X)

->[고전 논리에서는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면 -> 후건인 Q는 거짓이다]는 다른 말로 하면 [전건 긍정 규칙이 고전 논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1.을 보면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라고 했네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고전 논리에서 \ominus 과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하다. = [고전 논리에서는 조건문과 P가 참이면 -> Q도 참이어야 한다. =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O)

->1.을 보면 적절한 것을 아시겠죠.

이렇게 [조건/가정/인과]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고난도 문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건/가정/원인->결과]만 잘 잡아주시면 되요. 그리고 [지문에서의 말->선지에서의 같은 말의 다른 표현]을 잡아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5.[예시]

요즘도 역시 중요한 녀석입니다. 보통 [예시]의 목적은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일반화된 문장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는 경우
2. 그러한 예시의 원리나, 사례를 <보기>추론 문제에 이용해서 푸는 경우

이렇게 말이죠. 글을 막 읽을 때는 예시가 나오면 대충 날려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기>문제를 풀기 위해 문제를 분석해보니 [예시]가 활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단속도, 일명 항부력]지문에서도 배경지식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되었고요:) 변론술 <보기>문제에서도 어김없이 두 대립항의 [예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귀중한 단서가 되었죠. 저 역시 지금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사용하고 있구요.)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②선지

②“이 문장은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자기 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

핵심은 ‘자기 지시적 문장’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정의]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평가원은 그 밑에 이용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역시나 [정의->예시 적용]의 패턴이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하면서 느껴야 되는 글의 구조입니다.

“? 정의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뒤에 예시가 있구나. 이 녀석을 이용해야지.”와 같이.

4문단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 예를 들어 “ 이 문장은 모두 열여덟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참인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고 있다.<->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다.”]

->[‘이 문장은 A다’ 라는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구나(이 문장=A)-> 선지를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자기지시적 문장으로 볼 수 있네.->근데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A의 내용이 바로 자기 지시적이다’라는 내용이네. -> 따라서 참 이겠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죠.

6.[주장/근거]

요 녀석도 중요합니다. 보통은 어떤 주장이 등장하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근거가 따라붙죠. 또한 평가원 지문에서 이러한 주장은 1개의 주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보통은 추가적으로 다른 주장과 근거들이 주어지게 되죠. 앞에서 설명한 [구분/비교]파트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한 [주장]들의 서로간의 상관관계죠. 주장을 계승했을 수도 있고, 반박했을 수도 있으며, 두 주장이나 이론을 절충해서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38번 문제 ③선지

③중심 화제에 대한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보완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O)

->역시나 그대로 적용된 지문이네요.

[1,2문단 집합 의례에 대한 뒤르켐의 이론 -> 3문단 이러한 뒤르켐의 이론적 통찰을 계승 및 구체화= 파슨스와 스멜서의 기능주의 이론 -> 4문단 알렉산더는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수용 + 한계 지적 + 대안 이론 제시]

신기하죠?

7.[그 외 단골 표현들]

앞의 1~6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다만 1~6이 제시될 때 나오는 단골 부서, 수식어, 서술어, 등에 의식적으로 주목을 해서 1~6과 같은 구조를 잡아내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고3 시절 12개년 기출을 분석하고 다듬고 수정하면서 만든 가장 기본적인 문장 단위의 독해를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사실 나를 구체적으로 적어드린다고 했지만, 지면상으로 적어드리는 거라 한계가 있네요.π 이러한 도구들을 아신다고 지문이 뻑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러한 기준들은 2~4를 위한 기반이 되는 수단일 뿐입니다.

2. 붙여 읽기 문장 단위 -> 3. 문단 단위 -> 4. 글의 전체적인 흐름 잡기 (=1의 기준을 체화하는 연습)

사실 1과 같은 기준을 만든다고 지문이 잘 읽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듯 대다수 수험생들의 착각은

저러한 기준, 또는 방법론을 알고 나면 **갑자기 지문이 잘 읽힐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지문은 잘 읽히지 않습니다.

저러한 부분들은 기본 도구일 뿐이니까요.

이 때 필요한 게 [체화]를 위한 기출의 반복 학습입니다.

저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서 저러한 도구들을 적용시키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 이제 한 문장이 아닌, **문장끼리의 연관성**을 잡으면서 읽는 것에 중점을 두었구요.

요것과 관련해서는 실제 기출 지문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출 분석을 할 때 제가 했던 패턴 그대로 문장 단위 독해와 그러한 문장들을 붙여 보겠습니다.

편의상 한 문장에 하나의 번호를 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수능 33~36번의 탄수화물 지문의 1문단

1.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2.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3.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4.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5.ⓐ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어떤가요?

아마 내일 9평을 대비해서 닳고 닳도록 보셨을 탄수화물 지문의 1문단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해당 지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분석을 하셨나요?

1.(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 탄수화물을 [정의]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탄수화물은 필수적인 에너지원인가 보다 하고 읽으셨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가 나와 있는 문장은 평가원에서 선지 구성으로 주목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보자면, [데]입니다. [생존하는 데 -> 생존하기 위해서 라는 말이고, 이 말은 즉 탄수화물 -> 필수적인 에너지원 ->될 위해서? 사람을 비롯한 동물의 [생존]을 위해서.

사실 작년에 이 지문을 읽으면서 저는 첫 문장에서 이상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서냐면 바로 밑줄을 그은 부분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사람은 동물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사람'도 아니고 '동물(사람은 동물에 포함되는데)'도 아니고 굳이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분명 뒤에서 둘을 [비교] 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미리 둘을 구분해놓은 것이죠. 따라서 '아 그럼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여 글을 전개 할 수 도 있겠구나.' 가 될 겁니다. 생각보다 첫 문장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죠?)

2.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우선 탄수화물은 [구분]하고 있네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핵심 개념의 구분, 분류 역시 평가원이 선지를 구성할 때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나뉜 두 대상(혹은 그 이상)의 대상끼리 비교가 가능해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깁니다. 당연히 평가원이 선지를 구성하거나 함정을 파기 매력적인 부분이 되겠죠.

또한 이 문장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앞 문장과 연결지어가며, 즉 붙여 읽기를 하는 연습**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나뉘는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힘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고, 지금도 마냥 쉽지는 않으니깐요.

그래도 자꾸 의식적으로 앞의 내용을 자꾸 끌어다가 이용해줘셔야 됩니다.

조금 더 가보면 그렇다면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원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부터 저는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구분해가시면서 글을 읽었습니다. 크게 두 덩어리로 묶어서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실제로 전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2문단은 '반추동물이 반추위 미생물을 통해 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과정]' 이였고, 3문단은 '반추동물이 비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과정]'에 관한 식으로 전개 됐죠.)

3.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용[하여]/[같은]/분해[하고]/[이]역시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끊어가면서 처리했습니다. [인과]과정이 길고, 주어와 술부의 거리가 멀어서요.

먼저 '사람'이라는 주체가 비섬유소(=곡류의 녹말)를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주는 것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하고 그 후에 이(=앞에서 분해된 포도당)를 소장에서 흡수해야 (비로소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비섬유소->포도당(by효소)->소장흡수->E이용]의 과정이겠네요.

'아 비섬유소가 바로 에너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에너지원이 되는구나.' 와 같은 선후 관계도 잡아줄 수 있네요.

여기서 저는 찜찜한 느낌을 받았어요. 왜? 앞에서는 '사람을 비롯한 동물' 이었는데 여기선 '사람은'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사람은'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을 비롯한 동물 중 사람은'이란 의미인거죠. 앞에서 생각했던 '사람과 동물을 비교할 수 도 있겠네.'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니까요.)

-> 여기까지 읽었을 때 1.탄수화물(는 비섬유소와 섬유소로 구분되는데)은 사람과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쓰인 다네요. 근데 3.에서는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주체가 '탄수화물 중 비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네요.

사실 여기까지 글을 읽고 의문이 들어요.

"사람은 탄수화물 중 비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한 됐고, 그럼 나머지 섬유소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또한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동물도' 탄수화물 중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걸까? '와 같은 의문과 말이죠.

4.[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나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앞에서 한 예측대로 '사람'이라는 주체가 이번에는 '섬유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내용이 제시 되었네요. [반면]이라는 부분 역시 대조 관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주목해볼까요?

[반면]까지 읽었을 때 사실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 대조가 될 수 있는 건

- 1.'사람의 에너지원으로의 비섬유소<->섬유소'의 대조
- 2.'사람 <-> 사람이 아닌 동물'의 대조

두 가지이죠.

근데 [반면]뒤에 '사람은'이 주어로 나왔으므로 '1번의 경우가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즉 사람은 비섬유소는 에너지원 ○○○/ 섬유소는 LLL입니다.

만약 섬유소도 이용이 가능했다면 [반면]이 아닌 [또한]이 왔겠죠. 사소한 요런 느낌을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체화입니다.

조금 더 문장 독해를 해보면, 그렇다면 사람은 왜 비섬유소는 이용하는데 반면 섬유소는 이용을 못할까?

그 이유는 [므로]라는 인과를 나타내주는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네요.(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 소장에서 이용불가)

그렇다면 '왜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합성되지 않으면 소장이 이용을 못할까' ->3문장에서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통해서 비섭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그 '포도당'을 소장에서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비섭유소 -> 포도당으로 분해by효소 -> 그 분해된 포도당이 소장에서 흡수 ->에너지원으로 이용)이라는 과정에서 '효소'가 없으니 섭유소->포도당의 분해 과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즉 '아 효소가 없으면, 섭유소는 애초에 소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포도당으로 분해가 안 되니까 이용을 못하는 거구나'가 되는 겁니다.

5.㉠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섭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지[만], 비섭유소와 섭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역시 앞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이번에는 '사람과 다른 반추동물'이 섭유소와 비섭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해 나오네요. 즉 '사람'과 '반추 동물'의 [비교]가 되겠네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도]와 [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반추동물[도] 섭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로이지[만]" 까지만 읽고도 느낌이 오죠.

'반추동물도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과 같지만[공통점]인데,
(->효소X ->섭유소 포도당으로 분해X -> 소장에서 흡수해서 에너지원 이용X)

뒤에 뭔가 [차이점]이 제시되겠구나. 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고 문단 붙여 읽기를 적용시켜 보면 다음 문단에 어떤 내용이 올까요?

평가원의 지문처럼 잘 쓰인 글이라면, 그러한 반추동물이 인간처럼 섭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X[공통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섭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까[차이점]? 에 대해 설명하는 문단들이 이어지겠죠?

실제로 2문단에서 [반추동물이 섭유소를], 3문단에서 [반추동물이 비섭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서술되는 문단들이었죠. 이러한 큰 구조가 머릿속에 잡히도록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세요.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1문단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뒤에 읽는 내용들이 점점 선명하지 않게 다가오는 느낌을 받은 경험이 시험 때 정말 많았거든요. 이 점을 고치려고 가장 많이 노력했구요.

그래서 항상 첫 문장, 또는 첫 문단을 읽어보고 저는 [소재를 잡고->그러한 소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제재]를 잡기 위해 잠깐 생각을 해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큰 구조도를 떠올려보는 것이죠. 마치 영화의 예고편 같은 느낌으로.

아쉬우니까 한 지문만 더 볼까요?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35~39번에 해당하는 일명 '법인격 부인론' 지문의 1문단.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며,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사단은 법인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한다.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빛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또 한 문장씩 문장 간의 상관관계를 잡고, 유기적으로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1)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 한다.

네. 역시나 첫 문장은 권리 능력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하네요. 권리 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2)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사람'이라는 주체가 나왔습니다. 또한 앞에서 정의한 '권리 능력'도 서술이 되네요. 그렇다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1,2 문장을 연결 지어 가며 읽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1) 권리와 의무의 주체 / 2)사람은
-> 권리와 의무의 주체 중 사람은

1)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 2)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

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즉 2번 문장을 1번 문장과 유기적으로 다시 읽어 준다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 중)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의 의미가 되겠죠.

1번 문장은 2번 문장을 서술하기 위한 필자가 독자에게 제공해주는 배경지식이 됩니다.

즉 앞의 문장이 뒤에 나오는 문장들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은 잘 쓰인 글이라면 어떤 글에서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의식적으로** 잡으면서 읽었던 것이 일관된 기준을 체화시키기 위한 연습이었어요.

3)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권리 능력 중 권리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역시 권리의 주체)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권리 능력 중 의무의 주체)를 지기도 한다.

로 유기적으로 읽어 줄 수 있겠죠. 어떤가요. 글의 유기성이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여기까지는 권리 능력에 대한 설명과 '사람'이라는 주체의 권리 능력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4)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서 부터는 글의 세부적인 흐름이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주체가 '사람'에서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로 바뀌었네요.

핵심은 뒤에 '일정한 요건'이 제시될 것이라는 점이죠.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 -> 일정한 요건 갖추면 -> 법인격]이라고 했으니까요.

5)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며,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6)이를 사단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 한다.

5번과 6번 문장 역시 긴말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번에서 말한 '일정한 요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죠. 보이시나요?

5번 문장에서의 1.'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 조직체', 2.'구성원과 구별되어 = 독자적 실체로 존재', 3.'운영기구를 두어', 4.'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 은 6번 문장에서 서술한 '이러한 성질'인 '사단성'에 해당 하고 그러한 사단성(1~4의 성질)은 '일정한 요건' 중 하나가 되겠죠.~)

즉 5번 문장의 내용 서술을 6번 문장에서는 용어를 통해 '정의'하고 있는 거죠. 또한 5번 문장에서 설명한 그러한 '사단성'을 갖춘 단체를 바로 '사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7)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 한다.

->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원은 5번 문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사람들'이 되겠네요.

8) 사단은 법인으로登記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부른다.
9)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登記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 이라 한다.

8&9번 문장에서 역시 '구분&분류'가 드러납니다. '사단성'을 갖춘 단체인 '사단'은 법인으로登記되는 여부에 따라 '사단 법인'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드디어 '단체'가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사람들 결합체인 단체 -> 일정한 조건 (=1.사단성을 갖춘 사단 + 2.법인으로登記) 갖추면 -> 단체의 권리 능력인 법인격(=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됨 -> 그게 바로 '사단 법인'

10)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 11) [그리하여]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인격이라 함)을 가질 수 있고 (사람은 저절로, 법인은 위에 나온 조건들을 갖추면 ㅇㅇ) 두 권리 능력은 구별됨 -> 구별되니까 사단 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 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되고, 사원에게 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게 되는 것임

여기까지가 1문단의 내용입니다. 1문단의 내용은

권리 능력이란 게 있음 -> 그게 뭐냐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 -> 근데 이걸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갖고 소유권, 채권, 채무 등이 권리 능력의 예임 -> 단체도 사람처럼 권리 능력 가질 수 있음 -> 근데 개나 소나 다 갖는 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됨 -> 조건이 뭐냐면 사단성을 갖춘 사단인면서 법인 등록도 해야 됨 개 까다로움 그게 사단 법인임 -> 이렇게 사람 & 사단 법인만 권리능력 (법인격)을 갖는데 둘은 구별됨 -> 그래서 사단 법인이 진 빚은 개인 책임 ㄴㄴ 사단 책임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도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권리능력이란 것을 소재로 제재가 구체화되죠. 즉 [사람과 단체의 권리 능력은 엄격히 구별된다.]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뒷부분을 마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지문은 단순히 권리능력이나, 사단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서 쓴 글이 아니죠. 사실은 [법인격 부인론]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글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선행적으로 필요한 개념들을 깔아주고 있는 거고요.

압

여기까지가 제가 고3 시절 기출 분석을 하던 방법 1~4의 그대로입니다.

사실 상당히 지엽적이고 구체적인 것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서 이렇게 까지 해야 돼? 비효율적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글을 **“이게 맞는 공부법이다.”** 라는 말을 하기위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에게 **수험생시절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무엇이 되었든,

그게 꼭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의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 만에 이러한 **일관된 기준**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잘 다듬고 수정하고, **체화**해서

꼭 수능 날 1교시 국어 영역에서도

어김없이 지문들을 읽어내시길:)

9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능에서는 꼭 다들 원하시는 결과 있길 항상 응원합니다.~)

기억해라, 너는 나보다 뛰어나다. By후국일T